

신해양시대 충남 해양수산 발전전략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충남발전협의회(회장 한만우)와 공동으로 5월 31일 제10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충남임해수련원(대전해수욕장 소재)에서 해양수산 전문가, 관계 공무원, 수협 임직원, 어촌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해양시대 충남 해양수산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움은 최근 바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공주, 연기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충청남도가 환 황해권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잠재력 넘치는 바다를 기반으로 한 항만물류, 수산경제, 어촌·수산업 활성화, 해양자원의 관광자원화 등 새로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개최됐다.

이회경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장은 이날 심포지움에서 "충남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방향" 기초발표를 한데 이어 박성태 부경대학교 전 부산수산대학교해양산업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충청권 발전과 충남의 항만·물류체계(길광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물류전략팀장) ▲"바다목장 사업과 충남수산의 미래"(명정구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주 5일 근무와 웰빙시대의 어촌관광 진흥전략"(정 준 농촌체험휴양협회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토론자로 나선 김용환 호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김준석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장, 김정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 이태원 충남대 해양환경과 교수,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경제·관광연구부장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유덕준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하여 "바다를 장악하고 개발하는 것이 국력"이라며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토론을 통하여 집약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남해양수산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원장은 "오늘 토론에서 제시된 서해 중부권 물류중심 기지 구축을 위한 항만인프라 구축방안, 서해 갯벌 바다목장사업 등 수산업 활성화 방안, 주 5일제 확산에 따른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자원화 방안 등을 도정에 반영 충남도가 신 해양시대를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며, "충남 해양수산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되었다"고 심포지움을 평가하였다.